

돈 보스코의 예방교육을 통한 시노달리타스의 재해석: 청소년 사목에서 교회 쇄신의 모델로*

김선필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1. 들어가는 말
2. 교회 쇄신의 원리, 시노달리타스
3. 돈 보스코의 예방교육을 통한 시노달리타스의 재해석
 - 3.1 돈 보스코의 예방교육
 - 3.2 예방교육을 통한 시노달리타스의 재해석
 - 3.2.1 상호 경청과 대화의 공동체: 이성
 - 3.2.2 신앙 안에서 교도권에 대한 존중: 종교
 - 3.2.3 하느님 백성의 친교, 가족 정신의 부활: 감응하는 사랑
4. 나가는 말

* 본고는 2021년 11월 6일 “위드With 코로나: 시대의 징표에 응답하는 예방교육”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돈보스코청소년영성사목연구소 제7회 심포지엄 발표문을 수정·보완한 글임.

1. 들어가는 말

예방교육은 성 요한 보스코(S. Giovanni Bosco, 1815-1888, 이하 돈 보스코)가 창안한 독특한 교육체계로서 그 효과와 가치를 인정받아왔다. 예방교육은 돈 보스코의 모범을 따라 살아가는 살레시오 가족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세계 각지에서 뿌리를 내려왔다. 한국에도 살레시오 가족이 진출(살레시오회 1954, 살레시오수녀회 1957)하면서 돈 보스코의 삶과 예방교육이 소개되었다. 살레시오 가족은 한국에서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청소년들을 우선적으로 만나며 그들 안에서 예방교육을 실천해왔다.

그런데 한국 살레시오 가족은 예방교육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문서화하여 한국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 소개하는 작업에는 다소 무관심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예방교육이 이론보다는 삶으로 구현되는 것이라는 전통이 살레시오 가족 안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무엇보다 예방교육을 창안했던 돈 보스코 자신이 예방교육은 이론보다는 삶을 통해 구현되는 것이라고 여겼다. 때문에 그는 자신의 교육 방법을 글로 정리한 『예방교육에 관한 소고』에 대해 만족스러워하지 않았다고 한다. 초창기 살레시오 회원들 역시 예방교육을 이론화하기 보다는 현장에서의 경험을 강조했다.¹⁾ 이러한 경향은 한국 살레시오 가족에게서도 발견된다. 예를 들어 살레시오 가족이 한국에 진출한지 70여 년이 지나고 있지만, 예방교육과 관련된 책자와 학술 논문을 찾아보기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²⁾

나는 돈 보스코의 예방교육이 가난하고 소외된 청소년들을 보살피는 영역에서만 회자

-
- 1) “우리 살레시오 회원의 교육학은 교수의 강좌로부터 학술적인 논문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다. 실생활이 곧 우리의 논문이며 운동장, 자습실, 오락실, 성당, 기숙사가 곧 우리 논문의 내용이다.” 벤자민 푸토타 엮음, 『예방교육영성』, 이선비 옮김, (서울: 돈보스코미디어, 1998), 184-186.
 - 2) 지금까지 출간된 예방교육 관련 책자는 대략 다음과 같다. 푸토타 엮음, 『예방교육영성』; 피에트로 브라이도, 『돈 보스코의 예방교육』, 강연중 옮김, (서울: 돈보스코미디어, 2017); 카를로 데 암브로지오, 『돈 보스코처럼 교육합시다』, 살레시오수녀회 옮김, (서울: 돈보스코미디어, 2020) 등. 학술 논문으로는 몇몇 살레시오 회원과 평신도의 석사학위논문과 학술 논문들이 발견된다. 박해승, 『돈보스코, 그의 교육 철학과 신심 생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2006; 이미영, 『마이스터 엑카르트 관점에서 보는 돈 보스코의 예방교육적 생태영성』, 석사학위논문,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2011; 이미영, 「하느님의 관상하는 이론-예방교육 영성」, 『종교문화학보』, 10(2013); 정성애, 『현대 사회의 청소년 행동이해와 돈 보스코 예방교육』, 석사학위논문,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2019; 정지원, 『성 요한 보스코의 예방교육영성의 ‘이성’적 측면이 청소년교육에 미치는 영향-천주교 살레시오회 기관의 청소년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2004; 정현숙, 「돈 보스코의 예방교육과 상담」, 『종교교육학연구』, 18(2004); 정현숙, 「돈 보스코의 예방교육에서 종교 원리의 원천」, 『종교교육학연구』, 20(2005).

되고 활용되는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왜냐하면 예방교육은 하나의 교육 체계일 뿐만 아니라, 보편교회가 성인으로 인정한 돈 보스코의 삶 전체를 뜻하기 때문이다. 즉, 돈 보스코를 통해 보여주신 하느님의 카리스마(Charisma)는 신앙인이 따라 살아야 할 삶의 방식(modus vivendi Christianorum) 가운데 하나³⁾이며, 그런 의미에서 “예방교육은 하나의 영상”이다.⁴⁾ 나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돈 보스코의 예방교육이 청소년 사목을 넘어 천주교회 전반에 확장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해보려고 한다.

이 논문은 최근 교회 안에서 자주 회자되고 있는 ‘시노달리타스(synodalitas)’⁵⁾와 예방교육의 관계에 주목한다. 시노달리타스는 교회 구성원 간의 친교와 소통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프란치스코 교황(PP. Franciscus, 재위 2013-)이 교회 쇄신의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이후 2018년에 교황청 국제신학위원회가 『교회의 삶과 사명 안에서 공동합의성』이라는 책을 발간하여, 새롭게 조명된 이 개념을 신학적으로 정리했다. 이 문헌은 2019년에 한국천주교주교회의가 번역출판하면서 한국 교회에 널리 알려졌다. 한편 세계주교시노드 제 16차 정기총회는 전 세계 천주교회에 시노달리타스의 구체적 실천을 요청하고 있다. 이번 시노드는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를 위하여: 친교, 참여, 사명”이라는 주제로 2021년 10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2년간 각 지역교회, 주교회의, 대륙별 교회, 보편교회 단계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교회의 각 공동체(교구, 수도회 등) 안에서 시노드 정신에 입각한 여러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오늘날 시노달리타스 개념은 교회 쇄신을 의미하는 대명사로 자리 잡고 있다.

3) “각 성인은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풍요로움에서 이끌어 내시어 그리스도인들에게 선사하시는 메시지입니다.” 프란치스코, 권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Gaudete et Exultate*, 2018),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8), 21항.

4) 한국 살레시오회 전임 관구장이었던 현명한 신부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예방교육은 하나의 영성입니다. 돈보스코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안에 자신의 사도적 활동 영성을 모두 집약해놓았기에, 살레시오 가족의 사도적 활동을 위한 진정한 영성은 이 안에서 찾아지는 것입니다. 예방교육은 돈보스코를 따르는 사람들의 애덕과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완성시키는 실천방법으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현명한, 『소개의 말』, 『예방교육영성』, (서울: 돈보스코미디어, 1998), 5. 알베르토 카빌리아(Alberto Caviglia) 신부는 예방교육을 살레시오 회원의 네 번째 서원으로 여겨야 한다고까지 말한다. 알베르토 카빌리아, 『살레시오 영성』, 서정관 옮김, (서울: 돈보스코미디어, 1999), 154.

5) ‘시노달리타스’는 ‘공동합의성’으로 번역되어 한국 교회 안에서 사용되어 왔다. 하지만 2021년 주교회의의 추계 정기총회는 해당 개념을 번역어 대신 라틴어 발음인 ‘시노달리타스’라 부르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총회 이전에 출간된 글들에서는 ‘공동합의성’이라는 번역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총회 이후에는 ‘시노달리타스’를 사용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인용문에 ‘공동합의성’, ‘공동합의적’이라는 표현이 사용될 경우, 해당 출판물의 고유성을 존중하기 위해 그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고, 인용문이 아닌 경우 주교회의의 결정에 따라 해당 개념을 모두 ‘시노달리타스’로 표현하기로 한다.

하지만 시노달리타스는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을 알려줄 뿐,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구현되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소 막연한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시노달리타스를 ‘교회 민주화’로 해석하고, 누군가는 토론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하며, 또 어떤 사람들은 교도권(magisterium)의 가르침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이런 혼란을 잠재우면서 시노달리타스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하는 작업이 한국 교회 안에 요구된다고 하겠다.

예방교육은 이성, 종교, 감응하는 사랑(amorevolezza, ‘친절한 사랑’으로도 번역됨)을 특징으로 한다. 나는 이 예방교육이 시노달리타스를 신자들에게 올바르게 이해시키고, 또 교회 안에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법 혹은 영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즉, 예방교육이 청소년 사목 원리에서 교회 쇄신의 원리로 확장 해석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시노달리타스 개념에 대해 살펴본 뒤, 예방교육의 세 기둥인 이성, 종교, 감응하는 사랑을 통해 시노달리타스의 구체적인 의미를 재해석할 것이다. 이로써 예방교육이 시노달리타스를 향한 교회 쇄신의 구체적인 실천 모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줄 것이다.

2. 교회 쇄신의 원리, 시노달리타스

시노달리타스의 여정은 하느님께서 제삼천년기의 교회에 바라시는 것이다.⁶⁾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5년 주교 시노드 설립 50주년 기념 연설에서 교회 쇄신을 위한 핵심 키워드로 ‘시노달리타스’ 개념을 제시했다. 시노달리타스는 ‘~와 함께’라는 의미의 그리스어 ‘συν’과 ‘길’이라는 의미의 ‘ὁδος’가 합성된 단어로서, “하느님 백성이 함께 걸아가는 여정”을 뜻한다. 그것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을 연상시킨다. 예수께서 자신을 “길이고 진리요 생명”(요한 14,6)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⁷⁾ 이점에서 시노달리

6) Francis, *Address of His Holiness Pope Francis*(Ceremony Commemorating the 50th Anniversary of the Institution of the Synod of Bishops), (2015.10.17.); 교황청 국제신학위원회, 『교회의 삶과 사명 안에서 공동합의성』(*La Sinodalita Nella Vita e Nella Missione Della Chiesa*, 2018),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9), 1항에서 재인용.

7) Ibid., 3항.

타스는 “‘시노드적인 교회’의 ‘구성적 차원’” 즉, “하느님 백성 전체가 교회의 삶과 사명에 관련되고 참여하는 것”을 일컫는다.⁸⁾

시노달리타스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재위 초기에 밝힌 사목방침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교황은 2013년에 발표한 권고 『복음의 기쁨』을 통해, “제2차 바티칸공의회는 교회의 개혁을 예수 그리스도께 충실한 끊임없는 자기 쇄신에 열린 것으로 제시”한다면서, 교황 성 바오로 6세가 밝힌 바와 같이 교회는 “거룩하고 흠없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이상적인 교회상과(예페 5,27 참조) 현대 세계에 제시되는 실질적인 교회상을 비교”하는 과정을 통해 지속적인 자기 쇄신을 추구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⁹⁾

그동안 교회는 “교황을 정점으로 하여 목자들로 구성된 가르치는 교회(Ecclesia docens), 그리고 하느님 백성의 나머지 다른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배우는 교회(Ecclesia discens)”¹⁰⁾로 자신을 구분 짓고, 구성원 간에 수직적이고 경직된 관계를 형성해 왔다. 하지만 제2차 바티칸공의회는 성직자와 수도자, 평신도를 하나의 ‘하느님 백성’(populus Dei)으로 선언하며, 교회 구성원 간의 친교를 강조했다.¹¹⁾ 이점에서 시노달리타스는 비록 공의회의 가르침에서는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 공의회가 약속한 쇄신 작업의 중심에 있다고 단언할 수 있다.”¹²⁾

교회가 제시하는 시노달리타스의 원리는 ‘함께 모여 고민하되, 지도자가 결정한다.’라고 요약할 수 있다. 모든 구성원들은 ‘신앙 감각’(sensus fidei)을 통해 복음화의 능동적 주체로서 교회의 활동에 참여하고,¹³⁾ 교회 지도자인 장상은 그들의 원의를 경청하고 사목적 차원에서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것이다. 이때 장상은 개인적인 판단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부여하신 직무에 따라 결정을 내린다.¹⁴⁾ 장상은 교회 공동체의 대표로서 결정을 내리는 것이기에, 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따라서 결정을 내리는 장상의 책임은 너무나 막중하다. 교회 구성원들은 그 책임을 함께 나누기 위해 마음을 모아 장상에게 협조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시노달리타

8) Ibid., 5항, 7항.

9) 프란치스코, 권고 『복음의 기쁨』(Evangeli Gaudium, 2013),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4), 26항.

10) 교황청 국제신학위원회, 『교회의 삶과 사명 안에서 공동합의성』, 35항.

11) 제2차 바티칸공의회, 『교회 헌장』(Lumen Gentium, 1964),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2), 제2장.

12) 교황청 국제신학위원회, 『교회의 삶과 사명 안에서 공동합의성』, 6항.

13) Ibid., 9항.

14) Ibid., 68-69항.

스의 선순환이다. 구성원들은 함께 모여 교회의 일에 대해 고민하고, 장상은 그 고민을 바탕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결정을 내린다. 그 결정의 무게를 잘 알고 있는 구성원들은 장상에게 협조하고 또 함께 모여 고민하는, 그렇게 하느님 나라를 향해 함께 걷는 여정이 시노달리타스를 구현하는 교회의 삶인 것이다.

물론 현실은 이상과 다를 수 있다. 교회 안에 ‘함께 모여’ 자체가 안 될 수도 있다. 또한 장상이 교회의 대표가 아닌 개인적인 성향으로 결정을 내릴 수도, 평신도가 지도자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듯 교회 안에 여러 어려움이 있기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시노달리타스’를 강조하며 교회 쇠신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한편 2020년 초 갑자기 인류에게 들이닥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는 시노달리타스를 향한 교회 쇠신의 필요성을 더욱 증대시키고 있다. 실제 프란치스코 교황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인류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만들었으며, 상호 연대를 통해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¹⁵⁾ 시노달리타스가 하느님 백성 간 친교와 공동 참여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팬데믹 시기에 교회 안에 시노달리타스를 구현하는 것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교회가 펼칠 수 있는 최선의 노력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팬데믹 이후 사목 현장에는 신자 수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교회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성직자와 평신도가 협력하여 교회를 운영해나가려는 노력들이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 교회 안에서는 성직자들이 신자들을 찾아 나서는 경우가 발견되고 있으며, 중단되었던 공동체 미사 재개 등 중요한 결정 과정에 신자들을 참여시키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¹⁶⁾ 각 교구 차원에서도 시노달리타스를 강조하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각 교구장들은 사목교서 등을 통해 교구 구성원들에게 시노달리타스 정신을 구현해나가도록 독려하고 있었다.¹⁷⁾ 다음은 2020년에 발표된 광주대교구장 김희중 대주교

15) Pope Francis, *General Audience*(2020.09.02.). https://www.vatican.va/content/francesco/en/audiences/2020/documents/papa-francesco_20200902_udienza-generale.html(접속일: 2022.02.17.). 교황은 회칙 『모든 형제들』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기도 했다. “코로나19와 같은 세계적 비극은 우리가 모두 같은 배를 타고 항해하는 세계 공동체라는 인식을 삼시간에 효과적으로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배 안에서 한 사람의 불행은 모든 사람에게 해가 됩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혼자 구원받을 수 없고 오로지 함께 가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깨달았습니다.” 프란치스코, 회칙 『모든 형제들』(Fratelli Tutti, 2020),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21), 32항.

16) 김선필,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 천주교회의 현실과 새로운 희망: 종교 사회학적 관점」, 『신학전망』, 212(2021); 정규환·오세일, 「코로나19 이후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 사목 패러다임의 전환」, 『가톨릭 신학과 사상』, 85(2021).

17) 유홍식, 『2021년 사목 교서』, (대전: 천주교 대전교구, 2020.11.29.); 이기현, 『2021 교구장 사목 교

의 ‘3개년 특별 전교의 해(2020~2022) 교구장 사목교서’의 일부이다.

이처럼 3개년 특별 전교의 해의 시작은 교회의 아름다운 공동합의성(synodalitas-하느님의 백성이 함께 걸어가는 여정)의 정신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특별 전교의 해를 자내는 동안 이 공동합의성의 정신이 보다 나은 교회를 위한 모든 논의와 실천의 과정에서 폭넓게 실현되고 충만하게 드러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보다 나은 교회를 위한 공동합의성의 정신은 또한 보다 나은 세상을 위하여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을 것입니다.¹⁸⁾

그러므로 시노달리타스는 교회 쇄신의 원리이자 팬데믹 위기 극복을 가능하게 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하느님께서 오늘날 보편교회와 한국 교회에 요구하시는 시대의 징표(signum temporis)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시노달리타스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실현되어야 하는 것일까? 단순히 교회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 서로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결정하기만 하면 되는 것일까? 나는 돈 보스코의 예방교육이 시노달리타스를 살아가려는 교회 구성원들에게 보다 구체적인 모델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지금부터 예방교육을 통해 시노달리타스를 이해하고,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3. 돈 보스코의 예방교육을 통한 시노달리타스의 재해석

3.1 돈 보스코의 예방교육

돈 보스코의 예방교육은 이론적 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고안된 교육 방식이 아니라, 돈 보스코와 청소년들이 함께 만들어낸 고유한 경험들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다. 돈 보스코는 19세기 산업화와 민족주의의 영향을 강하게 받던 이탈리아 북부 토리노(Torino)¹⁹⁾에서 활동했다. 도시로 몰려온 아이들의 노동주가교육 조건은 한없이 열악했고, 안정된 환경을 보장받지 못한 그들은 범죄에 쉽게 빠지게 되어 미래를 저당 잡혔다. 이 모습을 본 돈 보스코는 아이들이 ‘정직한 시민, 착한 그리스도인’(useful citizens and good Christians)²⁰⁾으

서』, (경기: 천주교 의정부교구, 2020.11.29.).

18) 김희중, 『‘3개년 특별 전교의 해’(2020~2022) 교구장 사목 교서』, (광주: 천주교 광주대교구, 2020.11.29.).

19) 이곳은 당시 사르데냐 왕국의 수도였다. 후일 사르데냐 왕국은 이탈리아를 하나로 통일시켰다.

20) John Bosco, *The Preventive System in The Education of The Young*(1877.03.12.).

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안전하게 먹고 자고 공부하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²¹⁾ 바로 여기에서 ‘예방’(prevention) 개념이 드러나게 된다. 돈 보스코는 아이들이 죄에 빠질 기회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그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곁에서 힘이 되어주는 역할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다. 이를 위해 그는 독특한 교육 방법을 실천했고, 그것을 예방교육이라고 부르게 되었다.²²⁾

일생을 바쳐 예방교육을 창안하고 실천했던 돈 보스코는 1877년에 『예방교육에 대한 소논문』을 출판했다. 그것은 살레시오 사업이 확장됨에 따라, 후배 살레시오 회원들에게 자신의 교육 방법을 정리해 남겨줘야 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여기서 그는 자신의 예방교육이 세 가지 요소 즉, 이성, 종교, 감응하는 사랑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했다.²³⁾ 사실 각 요소들은 그의 사목 현장에서 유기적으로 활용되었기 때문에 따로 떼어놓고 설명하기 어렵다. 하지만 예방교육을 체계화하려고 했던 그의 시도 덕분에 후배 살레시오 회원들과 후학들이 예방교육을 이해하고 연구하기가 훨씬 쉬워졌다. 그는 사제로서 아이들이 종교적 분위기에 흠뻑 젖어 들게 했고, 착한 목자 예수를 따라 그들의 목자가 되어 주었다. 이를 위해 그는 강요가 아니라 대화와 이해를 강조했다. 그것은 인내와 애덕을 필요로 하는 것인데, 돈 보스코는 예방교육을 통해 교육자와 청소년이 함께 성화(聖化)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보여줬다.

이점에서 그의 예방교육은 현대 사회에 속한 교회 구성원들이 서로 친교를 맺으며 함께 성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또한 그것은 오늘날 강조되는 시노달리타스의 정신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핵심 요소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바로

21) 더 나아가 돈 보스코는 청소년들이 “그리스도교적 교육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여 건강한 사회로 발전하고 성장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랐다. 왜냐하면 사회를 정의롭게 하고, 공동선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은 정직하고 유능하게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진옥, 「“착한 그리스도인, 정직한 시민”의 현대적 해석-돈 보스코 예방교육의 ‘종교’ 원리를 중심으로」, 『가톨릭청소년교육사목연구』, 1(2021), 123.

22) 아서 렌티(Arthur J. Lenti) 신부는 예방교육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예방교육은 해로운 영향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물리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유해한 상황으로부터 청소년을 떼어놓음으로써 피해를 치유해 주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아서 렌티, 『돈 보스코: 역사와 정신 III』, 강연 중 옮김, (서울: 돈보스코미디어, 2015), 204. 한편 예방교육은 돈 보스코가 살던 19세기의 시대적 분위기에 필요했던 교육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당시 여러 교육학자들이 예방교육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었고, 돈 보스코는 그것을 그리스도교 관점에서 청소년 교육에 적용했다. 윤만근, 「예방교육의 실천적 도전과 문화적 맥락의 재해석」, 『가톨릭청소년교육사목연구』, 1(2021), 82.

23) John Bosco, *The Preventive System in The Education of The Young*(1877.03.12.).

이성, 종교, 감응하는 사랑이다. 지금부터 시노달리타스가 추구하는 내용을 이성, 종교, 감응하는 사랑으로 나누어 상세하게 재해석해보려고 한다.

3.2. 예방교육을 통한 시노달리타스의 재해석

3.2.1 상호 경청과 대화의 공동체: 이성

시노달리타스는 교회 구성원들이 자기 의견을 충분히 제시하고, 교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바란다. “공동합의적인 교회는 참여적이고 공동 책임을 갖는 교회”²⁴⁾이며, 그것은 “교회 전체와 교회 안의 모든 이가 주체임을 표현”하기 때문이다.²⁵⁾ 이는 교회 구성원들이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친교를 맺는 것을 뜻한다. 그것은 경청과 대화를 필요로 한다.²⁶⁾

이점에서 시노달리타스를 향한 교회 쇄신은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노력이자, 민주적 가치와 합리성의 증대로 요약할 수 있는 현대 사회의 흐름을 수용하기 위한 교회의 노력을 보여준다. 그것은 쇄신과 현대화로 불리는 제2차 바티칸공의회 of the 아조르나멘토(aggiornamento) 정신과도 부합된다.

사실 초대교회는 “모든 이에게 모든 것”(코린 9,22)이 되기 위해 노력해왔다. 교회 구성원들은 서로 가진 것을 나누었고(사도 2,42-47), 교회 안에 중요한 결정 사항이 있을 때 함께 논의했다. 시노달리타스를 구현했던 초대교회의 모습은 특히 안티오키아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논의와 예루살렘 사도회의의 결정 과정에서 확연히 드러났다(사도 15,1-31). 그들은 그리스도인 가운데 할례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 간의 구분을 둘러싼 논의를 펼쳤고, 모든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사도들이 권위 있는 결정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교회 구성원들은 “각자의 역할과 기여하는 바는 서로 다르지만, 그 과정에서 모든 이가 다 주인공들”²⁷⁾이었다.

한편 박해 시기를 넘어 그리스도교 공인(313)과 국교화(391)가 이루어졌다. 이윽고 서로마제국이 멸망하자, 교회는 제국의 통치 공백을 메우며 세속적인 권력을 갖게 되었다.

24) 교황청 국제신학위원회, 『교회의 삶과 사명 안에서 공동합의성』, 67항.

25) Ibid., 55항.

26) 송용민, 「교회의 삶과 사명에서의 ‘공동합의성’(synodalitas)과 ‘신앙 감각’(sensus fidei)의 상관성에 대한 연구」, 『가톨릭신학』, 37(2020), 26-27.

27) 교황청 국제신학위원회, 『교회의 삶과 사명 안에서 공동합의성』, 21항.

이 과정에서 정책 결정권을 갖게 된 성직자와 그렇지 않은 신자 사이에 분리가 이루어졌다.²⁸⁾ 교회는 16세기 이후 등장한 종교개혁에 대응하기 위해 교회 내에 형성된 교계 질서를 더욱 공고화시켰다.²⁹⁾ 게다가 자유주의 사상의 발전으로 민주주의 체제와 근대 민족국가가 등장하면서, 교회는 기존 체제를 보호하기 위해 구성원 간의 구분을 강화시켰다. 이로 인해 구성원 간의 상호 경청과 대화는 어려워져만 갔다.

그러나 20세기 중반에 개최된 제2차 바티칸공의회는 약화되었던 교회 안의 시노달리타스를 강화하는 결정을 내렸다.³⁰⁾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은 바오로 사도가 제시했던 유기체적 비유 즉, 그리스도 신비체의 일부로 재인식되었으며³¹⁾, 평신도를 부를 때 사용하던 ‘하느님의 백성’ 개념은 성직자와 수도자, 평신도 모두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장되었다.³²⁾ 이를 통해 성직자와 평신도는 하느님의 한 백성으로서 친교를 맺는 관계로 변화되었다.³³⁾

그것은 12차 세계대전과 산업화로 드러난 인간의 도구화 현상과 이에 대한 비판 담론이 확산되던 당시 사회적 분위기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 막스 베버(Max Weber)가 지적하듯, 근대성(modernity)은 합리화(rationalization)를 특징으로 한다. 그것은 경청과 대화가 아닌, 목표 달성을 위해 효율적인 방법을 찾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목적 합리성’ 또는 ‘도구 합리성’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근대화가 진행될수록 인간은 조직의 일부(부속품)으로 전략하게 되는데, 베버는 그것을 ‘쇠우리(iron cage)’라고 불렀다.³⁴⁾ 이제 인간은 합리성을

28) 손희송, 「어제와 오늘의 평신도」, 『가톨릭 신학과 사상』, 13(1995), 12.

29) 트렌토 공의회(1545~1563)는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만일 누가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아무런 구별 없이 신약의 사제들이라고 하거나 혹은 모든 이들이 서로 동일한 영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면, 그는 명백히 “정돈된 군대의 전열”과도 같은 교회의 교계제도를 흐트러뜨리는 것이다.” 주세페 알베리고 외 엮음, 『보편 공의회 문헌집 제3권-트렌토 공의회·제1차 바티칸 공의회』, 김영국·손희송·이경상 옮김, (서울: 가톨릭출판사, 2006), 743.

30) 최현순, 「‘공동합의성’ 실현을 위한 교회론적 기초: 저마다 제 길에서 그리고 함께 가는 길」, 『신학전망』, 208(2020)208(2020); 교황청 국제신학위원회, 『교회 생활에서의 신앙 감각』(Sensus Fidei: In the Life of the Church, 2014), (서울: 한국천주교주교회의, 2016), 127항.

31) 1코린 12,13; 제2차 바티칸공의회, 『교회헌장』, 7항.

32) Ibid., 제2장.

33) 그것은 단순히 개념의 재인식 혹은 확장으로만 그친 것이 아니었다. 공의회는 문헌을 완성하기 위해, 주교, 수도자, 신학자, 평신도, 여성, 비가톨릭 그리스도인, 비그리스도인을 참여시켰으며, 수천 번의 토론(2,212회)과 서면 제안(4,361회), 516시간의 토론, 527회의 투표를 시행했다. 공의회는 “참된 상호 경청의 시간”이었고, 초대교회가 보여줬던 “공동합의적 교회”의 모습을 재확인하는 시간이었다. 최현순, 「‘공동합의성’ 실현을 위한 교회론적 기초: 저마다 제 길에서 그리고 함께 가는 길」, 8-9.

34) 막스 베버,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박성수 옮김, (서울: 문예출판사, 2010).

추구하는 체계(system) 즉, 쇠우리에 갇혀 움썅달썅 못하는 처지로 전락하게 된 것이다. 그것이 극적으로 드러난 것이 나치의 유대인 학살이었다. 그들은 더 많이, 더 효과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방법을 연구했던 것이다.³⁵⁾ 2차 세계대전 이후, 근대화가 불러온 끔찍한 결과에 충격을 받은 사람들은 새로운 대안을 찾아 나섰다. 이때 위르겐 하버마스(Jurgen Habermas)는 근대성에는 목적-도구 합리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사소통 합리성도 있다고 주장했다.³⁶⁾ 의사소통 합리성이란 사람들 사이에 서로 소통(대화)을 가능하게 하는 최소한의 규칙을 말하는데, 하버마스는 그것을 키우고 확장해 나갈 때 수단-도구 합리성이 옥죄어 오는 근대화의 어두운 면을 극복하고 진정한 근대화를 이룰 수 있다고 보았다. 하버마스의 주장은 공론장(public sphere)과 숙의 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에 대한 논의로 발전하게 되었으며, 시민 사회의 출현을 재촉했다. 이를 통해 모든 시민들이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공평하게 접근하고 토의 과정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현대 사회에 부각될 수 있었다.

제2차 바티칸공의회는 현대 사회의 고민을 선도적으로 수용하여 교회 구성원 간 소통과 경청을 강조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이점에서 공의회는 참으로 현대화(aggiornamento)의 공의회였다. 교회는 공의회 이후에도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밝혔다. 1971년에 열린 세계주교대의원회의의 제2차 총회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교회는 모든 사람에게 사상과 표현의 정당한 자유의 권리를 인정한다. 여기에는 또한 대화의 정신으로 각자의 의견이 충분히 청취된다는 권리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로써 교회 안에는 의견의 다양성과 상위성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한다. ... 교회의 구성원은 교회가 무엇을 결정할 때에 어느 정도 거기에 간여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이런 경우에 제2차 바티칸공의회와 교황청의 여러 가지 지시를 지켜야 한다. 예컨대 각종 협의회를 설치하는 경우에 위의 원칙을 고려해야 한다.³⁷⁾

35) 지그문트 바우만, 『현대성과 홀로코스트』, 정일준 옮김, (서울: 새물결, 2013).

36) 위르겐 하버마스, 『의사소통행위론 2』, 장준의 옮김, (경기: 나남출판, 2006).

37) 세계주교대의원회의, 『세계 정의』, 김남수 옮김,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71), 41항. 실제 교회는 공의회를 통해 재인식된 시노달리타스를 제도화시키기 위해 여러 기구들을 마련했다. 예를 들어 전 세계 주교단의 공론장인 ‘세계주교대의원회의(주교 시노드)’를 설치했다. 교황이 홀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주교단의 단장이자 일원으로서 동료 주교들의 의견을 풍부히 듣고 결정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었다. 교구 차원에서도 교구장이 사제단의 일원으로서 동료 사제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사제평의회’가, 평신도·수도자의 의견을 듣기 위해 ‘교구사목협의회’가 만들어졌다. 본당 차원에

이처럼 공의회 이후 지금까지, 공의회가 제시한 상호 존중, 경청과 대화의 관계는 지역 교회 전반에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제도뿐만 아니라 문화까지 바뀌기에는 시간이 걸리는 것이 사실이다. 즉, 교회 곳곳에 공의회 이전에 존재했던 구성원 간의 구분과 차별, 배제의 관행이 남아있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렇기에 “교회의 공동합의적 삶의 쇄신을 위해서는 하느님 백성 전체에게 자문을 구하는 절차들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³⁸⁾ 프란치스코 교황이 시노달리타스를 통한 교회 쇄신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편 돈 보스코는 교회 구성원 상호 간에 경청과 대화가 어려웠던 19세기를 살았던 인물이다. 하지만 그는 당시 만연했던 구성원 간의 배타적인 구분과 상호 단절적인 교회 분위기에 아쉬움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어렸을 적부터 몇 차례 그런 경험을 했었는데,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 사목 현장에 반영하고자 했다. 예를 들어 그는 10대 초반에 겪었던 경험을 이렇게 고백했다.

사제 직무를 수행하는 훌륭한 신부들은 많았지만, 그들과는 조금도 친해질 수 없었다. 때로 길에서 본당 신부님이나 보좌 신부님을 만나면 멀리서 인사를 하고 가까이 다가가면 허리를 굽혀 절을 했다. 그러나 그들은 점잖게 답례만 하고는 그냥 지나쳐 버렸다. 여러 번이나 나는 눈물을 머금고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가 사제라면 그렇게 안 할 테야. 아이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좋은 말과 좋은 충고를 해줄 거야. 본당 신부님과 조금이라도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칼로소 신부님은 내게 이런 기쁨을 주셨는데 왜 다른 신부님들은 그렇게 못하는 걸까?”³⁹⁾

이처럼 돈 보스코는 제2차 바티칸공의회가 개최되기 약 100여 년 전 사람이었지만, 이

서는 사목구 주임사제가 본당 구성원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할 수 있도록 ‘본당사목협의회’가 만들어졌다. 이처럼 공의회 이후 교회는 보편교회에서 일선 본당까지 교회 구성원의 목소리가 지도자의 사목적 결정에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이러한 제도적 성과들은 교회 내에 시노달리타스를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교황청 국제신학위원회, 『교회 생활에서의 신앙 감각』, 125항.

38) 교황청 국제신학위원회, 『교회의 삶과 사명 안에서 공동합의성』, 65항.

39) 돈 보스코, 『돈보스코의 회상: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오라토리오 회고록』, 김을순 옮김, (서울: 돈보스코미디어, 1998), 73-74. 한편 돈 보스코는 신학생 시절 신부님들과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방학이나 개학 때는 흔히 학장 신부님이나 웃어른들에게 문안드리러 갔다. 그러나 호통을 맞으러 갈 때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들과 대화를 나누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한 주에 한 사람씩 번갈아 가면서 식사 시간과 소풍 때 감독을 하러 왔는데 그게 전부였다. 나는 그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충고도 청하고 마음속에 있는 질문도 해 보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어렵도 없는 일이었다. 웃어른이 신학생들 사이로 지나가면 학생들은 무슨 시커먼 짐승이라도 만난듯이 좌우로 허겁지겁 달아났다. 이 모든 것은 어서 빨리 신부가 되어 소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을 보살펴주고 온갖 필요성을 채워 주겠다는 내 마음속의 열망을 부채질했다.” Ibid., 141-142.

미 공의회의 전망을 이해하고 있었다. 그는 성직자와 신자, 교육자와 청소년이 상하 관계가 아닌 친교의 관계를 맺는 존재임을 일찌감치 자각하고 있었고, 그것을 자신의 예방교육에 적극 적용하고자 다짐했던 것이다. 그것은 초대교회가 보여줬던, 또한 앞으로 공의회가 재발견하게 될 교회의 시노달리타스를 다시 혹은 미리 재현하고자 했던 돈 보스코의 예언자적인 면모였다. 특히 돈 보스코가 강조하는 소통과 경청을 통한 ‘예방’은 근대의 목적-도구 합리성이 말하는 ‘억압’(repression)과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근대가 겪고 있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도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돈 보스코가 실천했던 예방교육은 시노달리타스를 향한 교회 쇄신에 주요한 함의를 제시한다. 그의 예방교육은 납득 가능한 교육 행위를 추구했다. 그것은 청소년과 교육자가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합리성 즉, 이성에 입각한 교육을 의미했다. 돈 보스코는 규율과 명령, 오락, 공부와 일, 교육자와 청소년의 관계 등 모든 교육 행위 속에서 합리성을 추구했다.⁴⁰⁾ 교육자의 명령과 권고는 공평해야하고, 온당해야하며, 자신들의 처지가 반영되어야 청소년들이 받아들여지게 된다고 돈 보스코는 생각했던 것이다.

이를 위해 그는 경청과 대화를 강조했다. 경청과 대화는 상대방의 마음을 열어주며, 상대방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기 때문이다. 실제 돈 보스코는 오라토리오에 있는 아이들의 면면을 유심히 지켜보았으며, 그들에게 다가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듣고 알맞은 조언을 해주었다.⁴¹⁾ 또한 성 도미니코 사비오(S. Domenico Savio, 1842-1857)와의 관계를 통해 알 수 있듯, 돈 보스코는 청소년 개개인과 친밀한 대화를 통해 아이가 원하는 것을 파악하고 그것을 위해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이와 함께 토의했다.⁴²⁾ 대화를 통해 형성된 합리성은 교육자와 청소년 사이에 신뢰 관계를 구축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이성(합리성) 중심의 예방교육은 교회가 시노달리타스를 구현해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준다. 예방교육은 교회 구성원 간의 엄격한 구별 대신, 같은 하느님 백성으로 서로를 인식하도록 인도한다. 그것은 비록 교계제도 안에서 권고와 순명의 관계가

40)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 푸토타 엮음, 『예방교육영성』, 288-291.

41) 돈 보스코의 일생에서 중요한 아이들과의 만남에는 언제나 진솔한 대화가 있었다. 예를 들어 1841년 소년 바르톨로메오 가렐리와 만남에서 돈 보스코는 겁먹은 가렐리를 안심시키며 대화를 이끌어냈다. 그것이 살레시오 사역의 시작이었다. 돈 보스코, 『돈보스코의 회상』, 189-193.

42) 도미니코 사비오는 돈 보스코와의 대화를 통해 자신이 성인이 되길 바란다는 의지를 밝혔고, 돈 보스코는 그의 영적지도자로서 그의 신심행위와 학업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결국 도미니코 사비오는 그의 소망대로 성인이 될 수 있었다. 돈 보스코와 도미니코 사비오의 첫 대화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고. 테레시오 보스코, 『돈 보스코』, 서정관 옮김, (서울: 돈보스코미디어, 2014), 444-446.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구성원들 사이에 이해 가능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를 위해 구성원 간에는 상호 경청과 대화가 필수적이다. 즉, 성직자는 신자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경청하고, 신자들은 성직자의 가르침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러한 소통을 통해 구성원들이 서로에 대해 이해하는 영역을 점차 넓혀나간다면, 시노달리타스를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은 우리 곁에 한 걸음 더 가깝게 다가올 것이다.

3.2.2 신앙 안에서 교도권에 대한 존중: 종교

시노달리타스가 인간의 이성, 구성원 간의 소통을 강조하지만, 그것은 시민 사회가 말하는 민주주의와는 뚜렷한 차이가 있다. 민주주의는 시민들이 주권자로서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다수결의 원리를 따른다. 하지만 시노달리타스는 성직자 수도자평신도가 같은 하느님의 백성으로 친교의 관계를 맺고 있어도 직분상 위계를 인정한다. 교황은 사도들의 으뜸인 베드로의 후계자이자 주교단의 단장으로서, 주교들은 사도들의 후계자로서 하느님 백성을 가르치고 복음을 선포하며, 거룩하게 하고, 다스릴 임무를 부여받았다.⁴³⁾ 이점에서 교황과 주교들은 하느님 백성과 더불어 친교를 이루면서도 신앙과 관련된 내용을 가르칠 권한 즉, 교도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시노달리타스에 입각한 교회의 의사 결정은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토의하고, 그것을 토대로 교회 장상들이 신앙 안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는 과정을 거친다.⁴⁴⁾

한편 민주적 토의에 따른 최종 결정은 인간이 지닌 존재론적 한계의 지평을 넘어설 수 없다. 인간은 자신이 위치한 삶의 자리(Sitz im Leben)의 사공간적 한계 속에서 사고하고 판단하며, 종국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주주의 공론장에서 도출된 결정이 곧 참(진리, true)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문재인 정부 초기에 있었던 속의 민주주의 실험 즉, ‘신고리 원전 공론화 위원회’의 원전 건설 재개 결정이 진정 옳은 결정이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점에서 민주주의는 존재론적인 한계

43) 제2차 바티칸공의회, 『교회헌장』, 제3장.

44) “공동합의성을 실행하는 데에서, 교회는 각자의 소명에 따른 모든 이의 참여가, 그리스도께서 교황을 머리로 하는 주교단에 부여하신 권위에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참여는 모든 신자가 성령으로부터 받은 각자의 선물들을 서로를 위하여 사용하도록 자격과 부름을 받는다는 사실에 기초한다. 목자들의 권위는 몸 전체의 건설을 위하여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주시는 특별한 선물로서, 백성으로부터 위임받거나 백성을 대표하는 역할이 아니다.” 교황청 국제신학위원회, 『교회의 삶과 사명 안에서 공동합의성』, 67항.

를 가지고 있다.

반면 교회는 진리를 담보하고 있다. 모든 하느님 백성은 “올바른 그리스도교 교리와 실천을 파악하고 그에 동의하며, 잘못된 것을 배척하도록 해주는, 복음의 진리에 대한 본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⁴⁵⁾ 이러한 ‘신앙 감각’(sensus fidei)을 토대로 논의되는 ‘신앙과 도덕’에 관한 내용들은 하느님께서 세우신 교도권을 통해 결정되기에, 그 결정은 하느님께서 내리시는 것으로 믿고 의지할 수 있다. 『교회헌장』은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성령의 도우를 받는 신자 전체는(1요한 2,20.27 참조) 믿음에서 오류를 범할 수 없으며, “주교부터 마지막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신앙과 도덕 문제에 관하여 보편적인 동의를 보일 때, 온 백성의 초자연적 신앙 감각의 증개로 이 고유한 특성을 드러낸다. 실제로 진리의 성령께서 일깨워 주시고 지탱하여 주시는 저 신앙 감각으로 하느님의 백성은 거룩한 교도권의 인도를 받는다. 교도권에 충실히 따르는 백성은 그 가르침을 이미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사실 그대로 하느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1데살 2,13 참조), “성도들에게 한 번 전해진 믿음”(유다 3 참조) 온전히 지키며, 올바른 판단으로 그 믿음을 더욱 깊이 깨닫고 그 믿음을 실생활에 더욱 충만히 적용한다.⁴⁶⁾

사실 교회는 민주주의 가치를 존중하지만, 그것이 교회의 구성 원리가 될 수는 없다고 명백하게 밝히고 있다. “교회는 그 헌법을 그리스도에게서 받았⁴⁷⁾기 때문이다. “신앙은 모든 시대와 지역에 맞는 유일한 복음에 대한 응답”이라는 점에서, “교회 안의 여론이나 다수의 의견”과 시노달리타스의 바탕인 신자들의 ‘신앙 감각’이 동일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⁴⁸⁾ 더욱이 “하느님 백성의 역사에서 신앙을 올바로 실천하고 증언한 이들은 흔히 다수가 아니라 소수였다⁴⁹⁾”는 점은 교회의 시노달리타스가 다수결을 기본으로 하는 민주주의 제도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즉, 교회는 민주주의 가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그것보다 상위 삼급에서 “모든 이가 걸어야 할 여정의 동반자로서 역사 안에서 걸어 나가도록 교회를 이끄시는” 성령과 함께⁵⁰⁾ 시노달리타스를 실

45) 교황청 국제신학위원회, 『교회 생활에서의 신앙 감각』, 2항.

46) 제2차 바티칸공의회, 『교회헌장』, 12항.

47) 교황청 국제신학위원회, 『교회 생활에서의 신앙 감각』, 114항.

48) Ibid., 118항.

49) Ibid.

50) Vatican news, 「교회는 여정의 동반자입니다」, 『VATICAN NEWS』(2020.05.24.). <https://www.vaticannews.va/ko/pope/news/2020-05/francesco-la-chiesa-e-compagna-di-strada-di-ogni-uomo.html?fbclid=IwAR2V>

현해나가는 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 이점에서 교회 구성원들은 장상의 결정을 신앙 안에서 받아들인다.

이러한 시노달리타스 정신은 돈 보스코 예방교육의 핵심 요소인 종교적 교육 방법에 부합된다.⁵¹⁾ 돈 보스코는 “그리스도의 중재와 교회의 중재를 ‘영적인’ 구원을 위해서만 아니라 전인적이며 사회적인 인간 활동을 위해서도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⁵²⁾했다. 그는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진리가 있으며, 모든 인간은 어머니이신 교회를 통해 구원을 받게 된다고 확신했다.⁵³⁾ 실제로 그는 이러한 자기 생각을 사목활동에 적극 반영했다. 그는 언제나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 일했으며, 젊은이들이 그리스도와 교회를 사랑하기를 바랐다. 이를 위해 교회사를 저술⁵⁴⁾하여 젊은이들이 쉽게 읽어볼 수 있도록 했고, 기회가 될 때마다 젊은이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대리자인 교회 장상들에 대해 애정을 표현하도록 독려했다. 신앙이 바탕이 된 교회에 대한 그의 존경과 사랑은 예방교육을 통해 고스란히 젊은이들에게 전달되었다.⁵⁵⁾

돈 보스코는 온 생애를 통해 교황과 주교들에 대한 존경과 순명의 정신을 보여줬는데, 그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확신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그의 모범은 치열한 토론 후 장상의 결정에 순복하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 즉, 시노달리타스를 구현한 교회상(想)의 예표라고 할만 했다.

장상들에 대한 돈 보스코의 순명은 특히 그의 말년에 있었던 토리노대교구 로렌조 가스탈디 대주교(Lorenzo Gastaldi, 1815-1883)와의 갈등 과정에서 선명하게 드러났다. 교황 레오 13세(PP. Leo XIII, 재위 1878-1903)는 둘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당사자와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가스탈디 대주교에게 공식 사과할 것과 로마 예수 성심 대성당을 지을 것을 돈 보스코에게 명령했다. 그것은 대주교와 돈 보스코 사이에 벌어진 갈등을 해결하고, 돈 보스코가 교황에게 순명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

SfkAq5mwbDMin-y000fsTFovOo2dr7AVxk_gM-0arsPbbE2L53gR-5Y(접속일: 2022.02.17.).

51) 푸토타 엮음, 『예방교육영성』, 75.

52) 렌티, 『돈 보스코』, 197.

53) 푸토타 엮음, 『예방교육영성』, 137-138.

54) 돈 보스코는 교회와 교황권을 옹호하기 위해 『이탈리아 역사』(초판, 1855-1856), 『이탈리아 역사』(제2판, 1859), 『초대 교황들의 일생』(1857-1858) 등 여러 권의 교회사를 저술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 렌티, 『돈 보스코』, 288-300.

55)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 푸토타 엮음, 『예방교육영성』, 143-149.

다. 사실 돈 보스코에게 그 명령은 자존심을 완전히 내려놓는 일이었고, 성치 않은 몸으로 초인적인 일을 해내야 하는 것이었다. 많은 이들이 교황의 명령을 따르지 말 것을 권했지만, 그는 온전히 교황에게 순명했다.⁵⁶⁾

이러한 돈 보스코의 행위는 교회의 결정과 이에 대한 순명이 민주주의적 가치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을 기초로 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특히 돈 보스코는 19세기 당시 성행했던 자유주의와 이에 따른 반(反)교회주의 사조를 정면으로 거스르며 교회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보여줬다. 그것은 인간의 이성을 강조하며 종교적 가치를 무시하는 경향이 짙게 뻗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교회 구성원들의 참여를 강조하는 시노달리타스의 구체적인 실천 과정에서 돈 보스코의 모범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할 수 있겠다.

물론 교회의 장상들이 시노달리타스에 따라 결정을 내렸다 할지라도 그 결정이 틀릴 수 있다. 제2차 바티칸공의회는 “그리스도의 대리자이며 사절로서” 통치권을 행사하는 “주교는 그들(아랫사람들: 인용자 주)의 영혼에 대하여 하느님께 셈을 치려야” 한다고 선언한다.⁵⁷⁾ 교회법 역시 통치권의 범위와 한계에 대해 규정을 둬으로써,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를 통치권 행사의 오류에 대비하고 있다.⁵⁸⁾ 이러한 것들은 장상들에게도 다스리는 임무에 있어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교회가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그것은 역설적으로 시노달리타스를 향한 교회 쇄신의 필요성을 더욱 잘 드러낸다. 죄인들의 공동체인 교회는 자신의 부족함을 알기에 “스스로 끊임없이 주님께 회개하는 일에 진력하고, 회개의 정신과 그 실천을 통해 새로운 백성으로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이루는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을 띠기 위해 노력한다.⁵⁹⁾ 따라서 순례자인 교회는 사도 바오로와 함께 기꺼이 다음과 같이 고백할 수 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 그분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로마 8,28)

사실 다른 이들이 볼 때, 레오 13세 교황이 돈 보스코에게 내렸던 명령은 부당해 보이는 면이 있었다. 하지만 돈 보스코의 순명은 ‘나에게 영혼을 달라(Da mihi animas).’는 그의 사목 모토를 궁극적으로 실현시켰다. 그의 순명은 성당 건립 모금을 위해 떠났던 프랑

56) 가스탈디 대주교와 돈 보스코의 갈등은 다음을 참고. 보스코, 『돈 보스코』, 706-729.

57) 제2차 바티칸공의회, 『교회헌장』, 27항.

58) 교황청, 『교회법전』, 주교회의 교회법위원회 옮김,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89), 제129조-제144조.

59) 요한 바오로 2세, 권고 『회해와 참회』(Reconciliatio et paenitentia), (로마: 교황청, 1984), 9항.

스와 스페인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죄인들의 회개를, 예수 성심 대성당의 완공을 계기로 로마 한복판에 가난한 젊은이를 위한 오라토리오의 설립을 가능하게 했으며, 살레시오회에 대한 후대 교황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얻도록 이끌어 살레시오 사업의 영구적인 토대를 만들었다. 그의 사례를 보면, 당장 눈앞에 보이는 교회의 결정이 부당하게 보일지라도 그들을 통해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것을 선으로 이끄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돈 보스코는 확신에 찬 신앙 안에서 교회 권위에 대한 존경과 사랑의 정신을 젊은이들에게 심어주었으며, 그것은 오늘날 시노달리타스를 향한 교회 쇄신의 모범이 되고 있다.

3.2.3 하느님 백성의 친교, 가족 정신의 부활: 감응하는 사랑

시노달리타스 즉, 교회 구성원 간의 상호 경청과 대화 그리고 신앙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도권에 대한 존중은 결국 교회가 하느님 사랑 안에 함께 하는 친교의 공동체로 거듭나야 한다는 사실로 귀결된다.⁶⁰⁾ 이는 시노달리타스가 하느님 나라를 향해 “함께 걸어가”는 것은 교회의 구성적인 것⁶¹⁾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공동합의적 스타일”은 “상호 존중과 환대의 태도”, “관대함과 인내” 즉, “형제애”로 요약될 수 있다.⁶²⁾ 다시 말해 시노달리타스는 하느님 안에서 일치를 이루길 바라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기도(요한 17,21-23)를 실현하는 것이자, 제2차 바티칸공의회가 되살린 초기 교회의 가족 정신⁶³⁾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의 구성원들은 친교보다는 상호 무관심하거나 이익을 얻기 위한 관계로 지내는 경우가 자주 관찰된다. 한국 교회에서도 그런 면이 종종 발견된다. 예를 들어 2014년 가톨릭신문사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구성원들은 교회 안에 세속주의가 확산되어 있으며, 사목보다는 관리 위주의 교회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 부분들이 긴급하게 쇄신되어야 할 것이라고 응답했다.⁶⁴⁾ 또한 2017년 조사에서는 냉담자의 66.3%가

60) 교회법적으로 구현되는 교도권에 대한 순명 역시 신앙 안에서 사랑의 관계를 통해 보완될 필요가 있다. 교황 성 요한 바오로 2세(PP. S. Joannes Paulus II, 재위 1978-2005)는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정의는 “그 자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실 정의는 사랑이라는 더욱 깊은 힘에 열려 있지 않으면 스스로 배반할 수도 있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 「2004년 제37차 세계 평화의 날 담화」(2004.01.01.), 10항.

61) 프란치스코, “이탈리아 주교회의 제70차 총회 개막 인사”(2017.05.22.); 교황청 국제신학위원회, 『교회의 삶과 사명 안에서 공동합의성』, 120항에서 재인용.

62) 최현순, 「‘공동합의성’ 실현을 위한 교회론적 기초: 저마다 제 길에서 그리고 함께 가는 길」, 36-38.

63) 푸도타 엠클, 『예방교육영성』, 223-224.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도 여전히 나는 가톨릭 신자라고 생각한다.’고 응답했는데, 그것은 한국 교회 구성원들의 교회 소속감이 상당히 낮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었다.⁶⁵⁾ 이런 점에서 볼 때, 시노달리타스에 따라 교회 안에 가족 정신을 구현하는 것은 천주교회 특히, 한국 교회 안에 스며든 상호 무관심과 세속적인 문화를 상호 돌봄과 친교의 문화로 변화시키기 위해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젊은이들은 그저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받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⁶⁶⁾

돈 보스코는 자기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청소년들이 느끼게끔 사랑해주어야 하며, 교육자 역시 청소년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것은 예방교육의 핵심 요소인 감응하는 사랑의 구체적 표현이었다. 이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착한 목자와 양들의 관계와 같다(요한 10,7-18). 예수께서는 착한 목자는 자기 양들을 알고, 양들은 자기 목자를 안다고 하셨다. 그렇게 서로를 알아볼 수 있는 것은 목자와 양들이 늘 함께 있기 때문이었다. 착한 목자는 양들의 곁을 떠나지 않으며, 자기 목숨을 걸고 양들을 지킨다. 양들 역시 자기 목자로부터 사랑받고 있음을 알고 있기에 한시도 목자 곁을 떠나지 않으려고 한다. 착한 목자와 양들은 이미 한 가족이 되어 함께 여정을 걸어왔던 것이다. 이점에서 착한 목자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Emmanuel) 하느님(마태 1,23)의 구체적 표상이며, 한 가족의 아버지이자 어머니의 모습이었다.

착한 목자였던 돈 보스코는 자기 양들 즉, 청소년들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의 사랑을 느꼈던 수많은 아이들 역시 그를 사랑했다.⁶⁷⁾ 이런 감응하는 사랑의 관계가 드러난 대표적인 사건이 1846년 7월에 있었다. 당시 돈 보스코는 호흡기 질환으로 임종을 앞두고 있었는데,

64) “‘가장 긴급하게 쇠신이 필요한 항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안의 세속주의’(33.88%), ‘사목이 아니라 관리가 강조되는 교회 운영’(23.66%).” 박영호, 「교황 방한, 응답하라 2014 한국교회: 교회 쇠신, 300인에게 물었다」, 『가톨릭신문』(2014.06.08.), 10면.

65) 박영호, 「제4차 ‘신자 종교의식과 신앙생활 조사’ 해설」, 『가톨릭신문』(2017.04.02.), 12면.

66) 돈 보스코, 「1884년 5월 10일 돈 보스코가 로마에서 보낸 편지」. http://www.dbym.net/board_LAWH80/194884(접속일: 2022.02.17.).

67) Ibid., 돈 보스코는 말년에 오라토리오(예방교육이 펼쳐졌던 현장)에 대한 꿈을 꾸고 그 내용을 편지로 남겼다. “그때 나의 그 친구는 “옛날 오라토리오에서 당신은 젊은이들 사이에 특히 오락시간에 항상 같이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 시절은 천국처럼 즐거웠습니다. 우리가 늘 즐겨 기억할 수 있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때는 만사에 사랑이 통했고 우리는 당신에게 아무 비밀도 없었지요.” “정말로 아무 비밀이 없었지. 그래서 그것이 내겐 큰 기쁨이었고, 젊은이들은 나에게 와서 이야기하기를 원했으며, 내 말을 듣고 실천에 옮기려는 열성들이 대단했었지.”

아이들은 그를 위해 기도와 희생을 바쳤다. 돈 보스코는 당시 상황을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내 병이 위독하다는 소식이 퍼지자 소년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비탄에 빠졌다. 소년들의 무리가 내 병실 문을 두드렸고 울면서 내 병의 증세를 물었다. ... 나는 그들이 간호사와 주고받는 말을 듣고는 감격했다. 그 후 나는 그들이 나를 위해 사랑으로 행한 여러 영웅적인 행위들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기도를 하고 단식을 하며 미사를 드리고 영성체를 했다. 콘솔라타 성당에서 밤낮으로 번갈아가며 ‘위로의 성모님’ 성화 앞에서 날 위해 기도했다. 계속해서 누군가가 그 앞에서 기도했다. 아침에 일하러 나가는 소년들은 그들을 대신해서 제단 앞에 머물러 줄 촛불을 켜놓았다. 밤늦게까지 많은 아이들이 하나님의 어머니께 불쌍한 돈 보스코를 낫게 해주십시오 애원했다. ...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 주셨다. ... 나는 지팡이에 의지한 채 오르토리오로 향했고, 그들은 울며 노래하며 나를 맞아 주었다. 그 감동은 도저히 글로 표현할 수 없다.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가를 부른 뒤에 환호성과 열광으로 나를 둘러쌌다.⁶⁸⁾

돈 보스코와 아이들이 맺었던 관계는 착한 목자와 양들의 그것과 같았다. 아이들은 돈 보스코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꼈고, 그 사랑에 감응한 아이들은 돈 보스코를 살리기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펼쳤다. 심지어 그들 가운데 일부는 평생 돈 보스코와 함께 하기 위해 살레시오 회원이 되었다.⁶⁹⁾ 이렇듯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돈 보스코와 아이들은 한 가족이 되어갔다. 감응하는 사랑 속에서 형성된 가족 정신은 그들을 교육자와 청소년에서, 같은 길을 함께 걷는 동반자로 만들었다. 교육적 관계가 시노달리타스적 관계로 승화되고 있었던 것이다.

제2차 바티칸공의회는 교회가 친교의 공동체가 되길 바랐다.⁷⁰⁾ 그것은 교회를 구성하는 각 신분들 즉, 주교와 신부, 부제, 수도자, 평신도가 사명에 따라 각기 다른 역할을 맡고 있지만, 같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동등한 품위를 누린다는 가르침에 기초를 둔다.⁷¹⁾ 모

68) 돈 보스코, 『돈보스코의 회상』, 275-277.

69) 초창기 살레시오 회원인 바르베리스(Barberis) 신부의 증언이 흥미롭다. “그 당시 돈 보스코는 단순히 이런 표현을 사용하였다. “돈 보스코를 사랑하십니까? 이곳 오르토리오에서 신학교 공부를 하지 않겠습니까? 때가 되면 돈 보스코를 도와주겠습니까?” [...]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미끼를 던졌으며 우리는 거기에 걸려들었다. 돈 보스코의 속임수에 걸려든 것을 우리는 다행으로 생각한다.” 렌티, 『돈 보스코』, 413-414에서 재인용. 살레시오 회원으로서 최초의 주교가 되는 소년 갈리에로(Giovanni Cagliero, 1838-1926) 역시 돈 보스코로부터 수도회 창립 제안을 들었을 때,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했다고 한다. “수도승이든 뭐든, 난 돈 보스코와 함께 남겠다.” 보스코, 『돈 보스코』, 498.

70) 제2차 바티칸공의회, 『교회헌장』, 13항.

71) Ibid., 제2장.

든 구성원들이 하느님의 한 가족으로 서로 사랑하며 지내는 것이 공의회가 원하는 친교의 방식이었던 것이다. 이점에서 돈 보스코의 예방교육이 보여준 감응하는 사랑과 이를 통해 형성되는 가족 정신은 친교의 공동체를 바라는 제2차 바티칸공의회에 전망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하지만 사랑을 주고받는 시노달리타스적 친교 관계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마음과 정신의 회심 없이는, 그리고 서로 함께 수락하고 경청하려는 수덕적 훈련 없이는”⁷²⁾ 불가능한 것이다. 이를 위해 돈 보스코는 임장지도(assistentza)란 독창적인 교육 방법을 창안해냈다. 임장지도는 교육자가 언제나 청소년들과 함께 머물도록 한다. 하지만 그것은 교육자와 청소년의 단순한 공존(co-existence)이 아니다. 착한 목자가 양 떼를 지키고 기쁜 목초지를 찾아내듯이, 교육자는 청소년이 있는 모든 곳에서 능동적인 현존을 한다. 그것은 감시나 억압이 아니라 자신의 구체적인 모범을 통해 아이들의 죄지를 기회를 예방하며, 그들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곁에서 격려와 제안을 해주는 것을 의미한다.⁷³⁾ 이때 교육자는 “소년들 한가운데서 아버지요, 형이요, 친구가 되기를 원하지 그들이 스스로를 웃사람으로 생각하기를 바라지 않”⁷⁴⁾는다. 그렇게 교육자는 아이들 곁에 머물며 그들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그 사랑에 감응한 아이들은 교육자를 사랑하게 된다.⁷⁵⁾ 그 사랑 안에서 아이들은 교육자의 가르침에 순종하게 되며, 교육자는 규율명령을 넘어 아이들을 사랑하게 된다. 이점에서 임장지도는 ‘이성’과 ‘종교’, ‘감응하는 사랑’이라는 예방교육의 핵심 요소를 종합완성시키는 구체적인 실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예방교육은 청소년의 변화만을 요구하지 않는다. 교육자는 임마누엘 하느님의 구체적인 현존을 보여주는 성사(聖事)로서 교육 현장에 존재하게 된다. 이점에서 임장지도는 교육자에게 한없는 희생과 인내를 요구한다. 그것은 예수께서 걸으신 십자가의 길이었다. 고된 일 때문에 오라토리오를 떠나려고 했던 가정자 맘마 말가리다(Ven. Margherita Occhiena Bosco,

72) 교황청 국제신학위원회, 『교회의 삶과 사명 안에서 공동합의성』, 107항.

73) “우리의 현존은 규율적이거나, 혹은 방어적인 개념을 넘어서야 한다. 소년들이 우리의 능동적 현존(우리의 임장지도)을 감시나, 혹은 규율준수의 감독관이 아닌 친근한 현존으로 느끼도록 해야 한다.” 푸토타 엮음, 『예방교육영성』, 220.

74) 카빌리아, 『살레시오 영성』, 153.

75) 카빌리아 신부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돈 보스코: 인용자)는 우리가 운동장에서 아이들과 함께 있기를, 감시자로서가 아니라 형으로서 친절한 역할을 수행하기를 원했습니다. 이것만이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애정과 신뢰를 낳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이들이 사랑받을 뿐만 아니라 사랑받고 있음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Ibid., 152.

1788-1856)에게 아들 돈 보스코가 손으로 가리킨 것은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이셨다.⁷⁶⁾ 그러므로 교육자는 청소년과 함께 성장하며 궁극적으로는 함께 성화된다. 도미니코 사비오, 미켈레 마고네(Michele Magone, 1845-1859)와 같은 아이들이 맘마 말가리다, 돈 보스코와 함께 성화의 길을 걸었던 것⁷⁷⁾은 교육자와 청소년 모두를 변화시키는 예방교육의 가치를 잘 보여준다. 또한 170여년 밖에 안 된 살레시오 가족이 성인들의 학교가 된 이유도 교육자와 청소년이 함께 성화의 길을 걷도록 이끌어 준 예방교육 덕분임을 부인하기 어렵다.⁷⁸⁾

감응하는 사랑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입장지도는 시노달리타스적 교회의 삶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보여준다. 교육자와 청소년이 함께 성화의 길을 걷듯이, 성직자와 수도자, 평신도가 함께 성화의 길을 걸어 나가는 것이 바로 시노달리타스의 정신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목자인 사제는 신자들 곁에 있기 위해 성당 안팎을 찾아 나서고, 신자들은 사제의 인도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면서 서로 존경과 사랑을 나누고, 교회 구성원 모두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 노력하는 것, 즉 임마누엘 하느님의 현존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것, 바로 그것이 예방교육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와 세상 안에 시노달리타스를 실현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

4. 나가는 말

지금까지 돈 보스코의 예방교육을 통해 시노달리타스 개념을 재해석해보았다. 다소 난해하게 보이는 시노달리타스 개념은 예방교육의 핵심 요소인 이성, 종교, 감응하는 사랑을 통해 조금 더 상세하게 구분하여 이해될 수 있었다. 시노달리타스는 교회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소통과 경청을 강조한다. 돈 보스코는 예방교육을 통해 공동체 안에서 시노달리타스적 교회의 모습을 실현해왔다. 그는 아이들과 격

76) 보스코, 『돈 보스코』, 331-332. 돈 보스코는 입장지도에 임하는 살레시오 회원들과 교사들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그들은 마치 치명자들처럼 공부하며 일하고 있지 않니? 하느님의 섭리가 맡기시는 젊은이들을 위하여 그들의 젊음을 송두리째 불사르고 있지 않니?” 돈 보스코, 「1884년 5월 10일 돈 보스코가 로마에서 보낸 편지」.

77)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 클라우디오 루소, 『돈 보스코가 만난 아이들』, 최주영 옮김, (서울: 돈보스코미디어, 2019).

78) 한국 살레시오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살레시오 성인은 9명, 복자는 21명, 가경자는 9명, 하느님의 종은 13명이다. http://www.ibosco.net/t1menu4_1(접속일: 2022.02.17.).

의 없는 대화를 통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적절한 도움을 줬다. 이때 그는 억압적인 방법으로 아이들을 교육하지 않았으며, 그들이 납득 가능할 수 있게 인내와 끈기로서 그들을 대했다(이성).

하지만 시노달리타스는 민주주의와 다르며, 교회 안에 질서 지워진 교계 질서를 따른다. 따라서 시노달리타스는 구성원들이 함께 토의하고, 지도자(교도권자)가 결정한다고 말할 수 있다. 돈 보스코는 아이들이 교회를 사랑하도록 끊임없이 독려했으며, 본인 스스로 교회를 사랑하고 교도권에 순명하는 모범을 보였다(종교).

물론 교계 질서를 따른다는 것은 상명하복의 권위적인 구조를 유지하거나 강화시키자는 말이 아니다. 시노달리타스는 오히려 교회 구성원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논의 과정과 결정을 신앙 안에서 존중하고 상호 친교의 관계를 강화시키길 바란다. 돈 보스코는 아이들을 사랑했으며, 그 사랑을 아이들이 느끼게끔 사랑했다. 그 사랑에 감응한 아이들 역시 돈 보스코를 사랑했다. 서로 사랑했기 때문에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고, 따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것은 착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했던 돈 보스코의 사목적 사랑이었다(감응하는 사랑). 이처럼 돈 보스코의 예방교육은 시노달리타스를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을 앞서 구현해온 교회 쇠신의 모델로서 가치가 크다.

교회를 친교의 원천이며 친교의 학교로 만드는 것, 이것이야말로 막 시작된 천년기에 우리가 당면한 큰 과제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계획에 충실하고 세계의 가장 깊은 열망에 부응하고자 한다면 말입니다.⁷⁹⁾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교회를 친교의 원천이자 친교의 학교로 만드는 것”이 21세기 우리가 당면한 큰 과제라고 말했다. 그것은 오늘날 시노달리타스라는 개념으로 우리 앞에 다시 제시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노달리타스는 돈 보스코 예방교육의 세 기둥 즉, 이성종교감응하는 사랑을 통해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점에서 예방교육은 교회를 친교의 원천이며 친교의 학교로 만드는 방법, 다시 말해 시노달리타스를 향한 교회 쇠신의 실천 모델로서 의미 있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예방교육 ‘영성’의 확산을 통해 천주교회 특히 한국 교회 안에 시노달리타스가 교회의 구성 원리로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게 되기를 하느님께 기도드린다.

79) 요한 바오로 2세, 교서 『새 천년기』(Novo Millennio Ineunte, 2001),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4), 43항.

참고문헌

- 교황청, 『교회법전』, 주교회의 교회법위원회 옮김,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89.
- 교황청 국제신학위원회, 『교회 생활에서의 신앙 감각』(*Sensus Fidei: In the Life of the Church*, 2014),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6.
- _____, 『교회의 삶과 사명 안에서 공동합의성』(*La Sinodalita Nella Vita e Nella Missione Della Chiesa*, 2018),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9.
- 김선필,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 천주교회의 현실과 새로운 희망: 종교 사회학적 관점」, 『신학전망』, 212(2021), 200-240.
- 김희중, 『‘3개년 특별 전교의 해’(2020-2022) 교구장 사목 교서』, 광주: 천주교 광주대교구, 2020.11.29.
- 돈 보스코, 『돈보스코의 회상: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오라토리오 회고록』, 김을순 옮김, 서울: 돈보스코미디어, 1998.
- _____, 「1884년 5월 10일 돈 보스코가 로마에서 보낸 편지」.
- 막스 베버,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박성수 옮김, 서울: 문예출판사, 2010.
- 박영호, 「교황 방한, 응답하라 2014 한국 교회: 교회 쇄신, 300인에게 물었다」, 『가톨릭신문』(2014.06.08.), 10.
- _____, 「제4차 ‘신자 종교의식과 신앙생활 조사’ 해설」, 『가톨릭신문』(2017.04.02.), 12.
- 박해승, 『돈보스코, 그의 교육 철학과 신심 생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2006.
- 벤자민 푸토타 엮음, 『예방교육영성』, 이선비 옮김, 서울: 돈보스코미디어, 1998.
- 세계주교대의원회의, 『세계 정의』, 김남수 옮김,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71.
- 손희송, 「어제와 오늘의 평신도」, 『가톨릭 신학과 사상』, 13(1995), 5-28.
- 송용민, 「교회의 삶과 사명에서의 ‘공동합의성’(synodalitas)과 ‘신앙 감각’(sensus fidei)의 상관성에 대한 연구」, 『가톨릭신학』, 37(2020), 5-36.
- 아서 렌티, 『돈 보스코: 역사와 정신 III』, 강연중 옮김, 서울: 돈보스코미디어, 2015.
- 알베르토 카빌리아, 『살레시오 영성』, 서정관 옮김, 서울: 돈보스코미디어, 1999.
- 요한 바오로 2세, 권고 『화해와 참회』(*Reconciliatio et paenitentia*), 로마: 교황청, 1984.
- _____, 「2004년 제37차 세계 평화의 날 담화」(2004.01.01.).
- _____, 교서 『새 천년기』(*Novo Millennio Ineunte*, 2001),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4.
- 위르겐 하버마스, 『의사소통행위론 2』, 장춘익 옮김, 파주: 나남출판, 2006.
- 유홍식, 『2021년 사목 교서』, 대전: 천주교 대전교구, 2020.11.29.

- 윤만근, 「예방교육의 실천적 도전과 문화적 맥락의 재해석」, 『가톨릭청소년교육사목연구』, 1(2021): 75-110.
- 이기현, 『2021 교구장 사목 교서』, 천주교 의정부교구, 2020.11.29.
- 이미영, 『마이스터 엑카르트 관점에서 보는 돈 보스코의 예방교육적 생태영성』, 석사학위 논문,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2011.
- _____, 「하느님의 관상하는 이콘-예방교육 영성」, 『종교문화학보』 10, 2013, 79-123.
- 이진옥, 「“착한 그리스도인, 정직한 시민”의 현대적 해석-돈 보스코 예방교육의 ‘종교’ 원리를 중심으로」, 『가톨릭청소년교육사목연구』, 1(2021), 111-143.
- 정규현·오세일, 「코로나19 이후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 사목 패러다임의 전환」, 『가톨릭 신학과 사상』, 85(2021), 147-209.
- 정성애, 『현대 사회의 청소년 행동이해와 돈 보스코 예방교육』, 대구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9.
- 정지원, 『성 요한 보스코의 예방교육영성의 ‘이성’적 측면이 청소년교육에 미치는 영향-천주교 살레시오회 기관의 청소년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2004.
- 정현숙, 「돈 보스코의 예방교육과 상담」, 『종교교육학연구』, 18(2004), 211-228.
- _____, 「돈 보스코의 예방교육에서 종교 원리의 원천」, 『종교교육학연구』 20(2005), 185-199.
- 제2차 바티칸공의회, 『교회 헌장』(*Lumen Gentium*, 1964),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2.
- 주세페 알베리고 외 엮음, 『보편 공의회 문헌집 제3권-트렌토 공의회 · 제1차 바티칸 공의회』, 김영국 · 손희송 · 이경상 옮김, 서울: 가톨릭출판사, 2006.
- 지그문트 바우만, 『현대성과 홀로코스트』, 정일준 역, 서울: 새물결, 2013.
- 최현순, 「‘공동합의성’ 실현을 위한 교회론적 기초: 저마다 제 길에서 그리고 함께 가는 길」, 『신학전망』, 208(2020), 2-47.
- 카를로 데 암브로지오, 『돈 보스코처럼 교육합시다』, 살레시오수녀회 옮김, 서울: 돈보스코미디어, 2020.
- 클라우드 루소, 『돈 보스코가 만난 아이들』, 최주영 옮김, 서울: 돈보스코미디어, 2019.
- 테레시오 보스코, 『돈 보스코』, 서정관 옮김, 서울: 돈보스코미디어, 2014.
- 피에트로 브라이도, 『돈 보스코의 예방교육』, 강연중 옮김, 서울: 돈보스코미디어, 2017.
- 프란치스코, 권고 『복음의 기쁨』(*Evangelii Gaudium*, 2013),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4.

- _____, 「이탈리아 주교회의 제70차 총회 개막 인사」(2017.05.22.).
- _____, 권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Gaudete et Exultate*, 2018),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8.
- _____, 회칙 『모든 형제들』(*Fratelli Tutti*, 2020),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21.
- 현명한, 「소개의 말」, 『예방교육영성』, 서울: 돈보스코미디어, 1998.
- Francis, *Address of His Holiness Pope Francis*(Ceremony Commemorating The 50th Anniversary of The Institution of The Synod of Bishops)(2015.10.17.).
- _____, *General Audience*(2020.09.02.).
- John Bosco, *The Preventive System in The Education of The Young*(1877.03.12.).
- Vatican news, 「교회는 여정의 동반자입니다」, *VATICAN NEWS*(2020.05.24.).
- 살레시오회 홈페이지 「살레시오 성인들」 http://www.ibosco.net/t1menu4_1(접속일: 2022. 02.17.).

돈 보스코의 예방교육을 통한 시노달리타스의 재해석: 청소년 사목에서 교회 쇄신의 모델로

김선필

예방교육은 성 요한 보스코(돈 보스코)가 창안한 독특한 교육체계로서 그 효과와 가치를 인정받아왔다. 그동안 한국 살레시오 가족은 예방교육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문서화하여 한국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 소개하는 작업에는 다소 무관심했던 것으로 보인다. 나는 돈 보스코의 예방교육이 가난하고 소외된 청소년들을 보살피는 영역에서만 회자되고 활용되는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왜냐하면 예방교육은 하나의 교육 체계일 뿐만 아니라, 보편교회가 성인으로 인정한 돈 보스코의 삶 전체를 뜻하기 때문이다. 나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돈 보스코의 예방교육이 청소년 사목을 넘어 천주교회 전반에 확장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해보려고 한다. 이 논문은 최근 교회 안에서 자주 회자되고 있는 시노달리타스(synodalitas)와 예방교육의 관계에 주목한다. 예방교육은 이성, 종교, 감응하는 사랑(amorevolezza)을 특징으로 한다. 나는 예방교육이 시노달리타스를 신자들에게 올바르게 이해시키고, 또 교회 안에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법 혹은 영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이 논문은 예방교육의 세 기둥인 이성, 종교, 감응하는 사랑을 통해 시노달리타스의 구체적인 내용을 재해석했다. 이로써 예방교육이 시노달리타스를 향한 교회 쇄신의 구체적인 실천 모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

주제어: 돈 보스코(요한 보스코), 예방교육, 시노달리타스, 청소년 사목, 교회 쇄신

An Interpretation of the Synodality through Don Bosco's Preventive Education: to Model of the Church Renewal from the Youth Ministry

Kim, Seonpil

The preventive education is a unique educational system invented by St. John Bosco(Don Bosco). It has been recognized for its effectiveness and value. However, the Salesian family in Korea seems to have been somewhat indifferent to the work of systematically organizing and documenting preventive education and introducing it to various areas of Korean society. I regret the situation in which Don Bosco's preventive education is only talked about and utilized in the area of caring for poor and marginalized youth. This is because preventive education is not only an educational system, but also means the entire life of Don Bosco, which is recognized by the Universal Church as a saint. Based on this awareness, I would like to explore the possibility that Don Bosco's preventive education can be expanded and applied to the entire Catholic Church beyond youth ministry. This paper focus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ynodality(Synodalitas), which has been frequently talked about in Churches recently, and preventive education. The preventive education is characterized by reason, religion, and responsive love (amorevolezza). And I think this can correctly understand synodality to believers and inspire them to realize it in detail in the Church. So this paper interpreted the details of synodality through reason, religion, and responsive love, which are the three pillars of preventive education. This has shown that

preventive education can be a concrete practice model for Church renewal toward synodality.

Key Words: Don Bosco(John Bosco), Preventive Education, Synodality, Youth Ministry, Church Renewal

논문 투고일	2022년 2월 27일
논문 수정일	2022년 4월 02일
논문게재 확정일	2022년 3월 28일
